

■ 제주도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정책토론회

행정 “실질 대응책 마련 못한다” 쓴소리

“수산물 안전홍보 대책 앞뒤 바뀐 것 같다” 질타도 “소비위축 등 고려… 매뉴얼대로 대책 마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올해 여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행정력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제주도와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임종명 원자력환경실장의 ‘제주 근해 해양방류조사’, 해양수산연구원 양혜영 연구사의 ‘안전한 수산물거리 제공을 위한 제주수산물 안전관리’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도민의 안전 보호와 소비위축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한 패널토론회에서는 제주도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제주 수산물의 소비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내 수산물의 안정성 홍보 전략과 관련해 수산업계 현장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제주도해녀협회 고송사 사무장은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해녀들은 바닷물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

을 주고 있는데 바다를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걱정이다”고 토론했다. 이어 그 사무국장인 “해녀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원전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돼 지구환경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국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회에 이어 참석자 질의·문답 시간에서 성호경 제주도어촌계장연합회장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만일

방류가 된다면 예상되는 피해문제를 현실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면서 “(원전수 방류와 대응과 관련해) 118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연구비로 모두 사용할 것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앞뒤가 바뀐 것 같다”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과정을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느끼도록 해줘야 하는데 안전하다고만 홍보하면 믿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원전수)방류해도 (수산물)안전하다는 의미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118억원 예산 얘기가 나오면 사후대책만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방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수산물의 안전 소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매뉴얼대로 마련된 대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국장은 “현재 정확한 정보공개, 검증은 국가적인 외교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수산물 소비위축 등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2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행정력과 관련 쓴소리가 제기됐다. 이상국기자

국민의 힘 “국회의원 증원 반대”

국회 정개특위서 선거제 개혁 논의되자 입장 표명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정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국회의원(비례대표) 증원이 담긴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소위원회를 열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 그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1안과 2안 모두 비례의원이 50명이 늘어 의원 정수는 350명이 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현행 유지하고, 줄어드는 의석수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부미현기자

백경훈 개발공사 사장 후보 이달 31일 청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인 백경훈 전 토지주택공사 부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13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내정된 백경훈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 일정을 오는 31일로 정했다.

백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조정실장, 서울지역본부장, 주거복지본부 이사를 거쳐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주거환경 정비,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태윤기자

공개경쟁 임용시험 경쟁률 7.3:1 기록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총 2128명이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17일 원서를 접수한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은 18개 직렬에서 8·9급 290명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평균 경쟁률은 7.3 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응시 경쟁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았다. 최근 경쟁률을 보면 ▷2011년 26.4:1 ▷2014년 12.0:1 ▷2016년 12.8:1 ▷2018년 11.9:1 ▷

2022년 10.9:1 ▷2023년 7.3:1이다.

이처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고교선택과목 폐지 등 다양한 요인이 기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주요 직렬 경쟁률을 보면 일반행정 9급은 141명 모집에 1095명이 지원해 7.8: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제주시는 87명 선발에 801명 지원(경쟁률 9.2:1)했고 서귀포시는 54명 선발에 294명 지원(경쟁률 5.4:1)했다. 한편 최종경쟁률은 21일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고대로그기자

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지원

수요자 금리 0.7% 적용 8203건·2444억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용자’에 수요자 금리 0.7%를 적용하고, 총 8203건·2444억원의 용자 지원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일부터 21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용자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17일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올 상반기 지원 규모는 신규 신청금액 861억원과 기존에 실행된 은행 용자 중 운전자금 용자 상환기간 1회 연장 대상 및 상환기간 도래 연장 대상 금액 1583억원을 합산한 규모다. 용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이다.

운전자금의 용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원금상환은 용자기간 종료 후 일시 상환하거나 용자기간 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차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그기자

여성가족연구원장 공모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여성가족연구원장 공모가 이루어진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현 민무속 원장의 임기가 5월 7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입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정교수로 5년 이상 대학 재직 경력이 있는 자 등이며 원서 접수는 내달 4일까지이다. 위영석기자

지역특화산업육성+(R&D) 후속사업 수요조사 공고

「지역특화산업육성+(R&D)」 후속사업의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수요조사 목적**
 - 공급망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내 우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R&D)의 후속사업 기획을 위해 기술개발 과제의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 도출
- 수요조사 분야**
 - 제주지역 주축산업(지능형관광서비스, 정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기술개발과제의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 수요조사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생태계 주도형	혁신성 및 성장성을 갖춘 지역대표 선도기업과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혁신을 통해 생태계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최대 7억원/년 (지원기간) 최대 2년 (수행기간) 2개 이상 기업의 컨소시엄
선도기업 육성형	지역대표 선도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최대 2억원/년 (지원기간) 최대 2년 (수행기간) 단독 혹은 컨소시엄
- 제안자격**
 - (생태계주도형) 제주지역 내 주축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으로, 선도기업 예비선도기업에 속하는 기업
 - (선도기업 육성형) 제주지역 내 주축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으로, 잠재기업에 속하는 기업
- 제안방법**
 - (제출기간) ~ 2023. 3. 31.(금) 18:00 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생태계주도형) <http://survey.panel.co.kr/?Alias=4575685506> (선도기업 육성형) <http://survey.panel.co.kr/?Alias=1411409170>
- 문의처**

문의처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수요조사 문의	정책기획단	손성민	064-720-2309	sohns@jejutp.or.kr
		김신영	064-720-2319	cnjong@jejutp.or.kr

JTP 제주테크노파크
JEJU TECHNOPARK

※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utp.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컨설팅 참여 관광사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관광사업체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및 질적 성장을 유도하여 제주 관광사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대상: 도내 관광사업체
- 모집업체: 10개소(선착순 모집/신청서류 완비일 기준)
 - 업체별 신청 순서대로 심사를 거쳐 선착순 10개소 최종 확정
- 지원내용
 -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경영, 마케팅, 인사/노무, 회계/세무)지원/전략무로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도내이며 설립이 1년 이상 된 사업체
 - 규모기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업종기준: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 내 일부 업종(협회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사업규약 기준 설립한 지 1년 미만인 사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국제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관광진흥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3. 20.(월) ~ 31.(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이메일) jta230206@naver.com - (팩스) 064-751-8864
 - 신청서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 → 공지사항 → 2023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 모집 공고 참조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부(064-741-8745)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